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올해 교회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시고, '약속의 말씀카드'를 받지 않으신 분은 예배 후에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4.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5. 변 주 토요일(1/30) 청소년당은 청년부 목장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1/31) 주일간식담당은 양떼 목장(황희용 권사)에서 섬기겠습니다.
6.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예배가 이제 제한적이지만 대면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등 공적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참석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1월 24일	1월 31일	2월 7일	2월 14일
예배기도(2부)		인도자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박성대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에스더목장 (오효근권사)	양떼목장 (황희용권사)	헵시바목장 (김금옥권사)	로렐목장 (정진숙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선교사님(미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감동의 교회(원주)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2021년
1월 24일
07-04호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2번(시편 2:1-6) 다같이
*경배찬송	23장(통 23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385장(통 209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인도자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창 32:11-31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은혜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300장(통 406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말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나

시편 18편 3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8:11-17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2)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32)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의 만나>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겨울단상(2)

이른 아침, 교회 마당에 펼쳐진 새하얀 눈밭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인다. 교회 뒷산의 수목과도 잘 어울려 멋진 그림을 연출한다. 자전거 도로엔 결빙(結氷)으로 미처 치우지 못한 눈길 위로 무리 지어 운동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무리지어 신나게 눈싸움을 하는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혹 들어 마신 겨울아침 공기는 폐부를 찌르지만, 겨울이 주는 운치에 연신 호흡하기를 반복한다. 여기까진 낭만이자 추억을 되짚어 보는 감상의 순간이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혹한의 한겨울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내려 쌓인 눈을 치우려면 언제 다 치울까 하는 걱정이 태산이다. 2주 이상 계속되었던 영하 20도의 맹렬한 추위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한파에 날 선 칼바람이 분다. 해가 바뀌어도 추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 20일은 큰 추위가 온다는 대한(大寒)이었다.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포근한 하루였다. 이를 놓칠 새라 한쪽으로 밀쳐놓았던 커커이 쌓인 눈덩이를 교회마당이며 길 건너편으로 열심히 퍼다 날랐다. 대면예배가 허용되었기에 교인들이 주차할 공간에 쌓여있던 미처 치우지 못한 눈이었다. 그러다가 새롭게 조성된 교회 텃밭에서 한 생명의 기운을 보았다. 울타리로 심어 놓았던 사철나무다. 그것도 원래 심어 놓았던 본 나무에서 나온 아주 작은 존재다. 이름 때문일까. 때때로 불어오는 매서운 삭풍과 희끗희끗한 눈 속에서도 그 어린 생명은 파란 색깔의 속성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다. 칙칙한 겨울과 맞지 않는 듯 이색적으로 보이지만, 이미 작년 가을부터 추운 겨울을 버티며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자라고 있다. 자신이 살 있다는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 보인다.

우리는 어떤가. 기뻐했던 일보다는 분노했던 기억으로 몸을 부르르 떨고, 행복했던 순간보다 괴로웠던 일들이 현재를 발목 잡을 뿐 아니라 그것에 따른 욕망이 일상을 추동하기 쉬운 우리들의 삶.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기쁨에서 생기는 욕망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했던 일이 언제였던가. 살아 있음에 전율과 기쁨을 느낀 적이 언제였던가. 그런 후회들이 몰려온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행복 사랑 기쁨 쪽으로 향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혹독한 현실 앞에서 다시금 인간의 본성을 찾아야 할 시기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자. 한 알의 작은 씨앗이 존재감 있는 생명의 기운으로 드러나듯이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뜰에 뿌리를 내어야 한다. 눈 내린 창밖을 온종일 쳐다보며 이런 하염없는 생각에 침잠한 오후, 결코 나쁘지 않다.

Written by 허영진